

'정음이라는 유일한 전통 기악곡'

수제천보존회, 학술세미나·국제민족음악교류제 개최

수제천의 고장 정음에서 수제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사)수제천보존회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수제천 학술세미나'와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및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음악을 한층 더 발전, 도약시켜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먼저 5일 오후 1시 20분 정음시청 대회의실에서 현경채 영남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수제천 학술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정음 수제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예정이다.

먼저 송방송 전 국립국악원장의 수제천을 주제로 한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김영운 한양대 교수의 '정음 수제천, 그 곡의 변천 과정', 서철원 서울대 교수의 '정음, 정음사, 백제문화권 : 지역문화로서 속요의 현장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신은주 전북대 교수의 '지역문화 속에서 수제천의 의미와 계승'과 최선아 서울대 교수의 '지역축제의 전통 음악 콘텐츠 활용 사례', 나연주 한국전통문화원 연구원과 문숙희 한국문화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무고와 정음(수제천)'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6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정음사예술회관에서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및 제9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진다.

수제천 연주단이 한국 음악의 대표적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답고 장중하고 화려한 수제천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고려 때 들어온 당악 보허자(步虛子)를 선보인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당악적 특색보다는 한국화된 음악으로 변해왔고 타악기 편중, 편경과 함께 연주되며 가사를 노래하는 창자가 있어 그 웅장함을 더한다.

또 이번 연주회에서는 형가리의 대표 민속악기인 썸발롬(양금)과 우리 음악의 교감도 시도해 본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현악기인 해금과 서양에서 유입되어 인도화 된 인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편곡된 '달아'는 정음을 대표하는 정음사 여인의 형상을 표현한 곡으로 이 두 악기로 연주되는 곡을 통해 우리 전통악기인 해금과 인도의 바이올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수제천은 정음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유일한 전통 기악곡이다. 우리 고장 정음사의 반주 음악으로서 선율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궁중음악인 아악 중 백미로 알려져 있다.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



의 제목을 가진 이 음악은 궁중의례와 연행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수제천보존회는 1996년 수제천 연주교실을 시작으로 현재 정기연주회와 국제민족음악교류제, 전국 각지 초청공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공연, 동학기념제, 정음사 문화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음=김태환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14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신중년 작가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작가탄생 프로젝트' 출판기념회 가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14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신중년 작가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협업하여 지난 7월 한 달 동안 노년기 진입 직전인 신중년(50~60대) 4명을 대상으로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를 진행하였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 27명의 작가들을 배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신중년 작가들의 가족, 지인들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및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2층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렸다.

공단 본부에서 처음 진행된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는 신중년이 인생 이모작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전문기 관인 공단이 주관하여 수강생이 한 달 동안 글쓰기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삶이나 관심사에 대하여 글을 쓰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단 전문강사의 브랜드, 글쓰기 강의와 강원국 작가의 특강 등이 진행되었다. 글쓰기 기술 향상보다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조석중 씨(전주시 독서동아리 연합회장)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4회에 걸쳐 작가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약 200명의 신중년 작가를 배출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노후준비 강좌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작가탄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27명의 신중년 작가를 배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제13회 진안예술제 '산바람 물소리'가 9월 7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열린다.

진안예술문화인들의 축제 '산바람 물소리' 열린다

제13회 진안예술제 '산바람 물소리'가 9월 7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열린다.

(사)한국예총 진안지회(지회장 이승철)가 주최하고, 진안문인·국악·미술·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예술과 지역이 함께 한다는 취지 아래 진안고원시장을 찾는다.

꾸준히 진안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진안예술

제는 각 협회공연과 초청공연이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된다. 미술협회 회원전, 문인협회 시화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예술제는 국악협회의 연합풍물대 길놀이로 시작으로 음악협회의 소리사랑, 미술, 느티나무 앙상블 연주와 노래, 문인협회의 시낭송, 국악협회의 민요,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미술협회

의 도자기 물레 시연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가수 지중해, 서운의 초청공연과 진안중영국보존회의 놀이마당이 마련되어 있다.

이승철 한국예총 진안지회장은 "진안예술제는 꾸준히 진안예술인들의 발표마당으로 자리잡으며 진안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번 예술제는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순수예술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기안전공사, 지역예술인 문화공연 'Shall We Dance' 성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후원하고 시간법인 문화재단(대표인)이 주최한 문화공연 'Shall We Dance'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분사 새울림홀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에는 혁신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정규 현대무용가, 김유리 리듬체조지도자, 박근령 댄스포츠타린프로선수, 우석대태권도시범단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플라마켓이 열려 주민들에게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공사에서는 전기안전부스를 운영하여 전기안전요령 습득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를 후원한 조성완 사장은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민



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공사를 찾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